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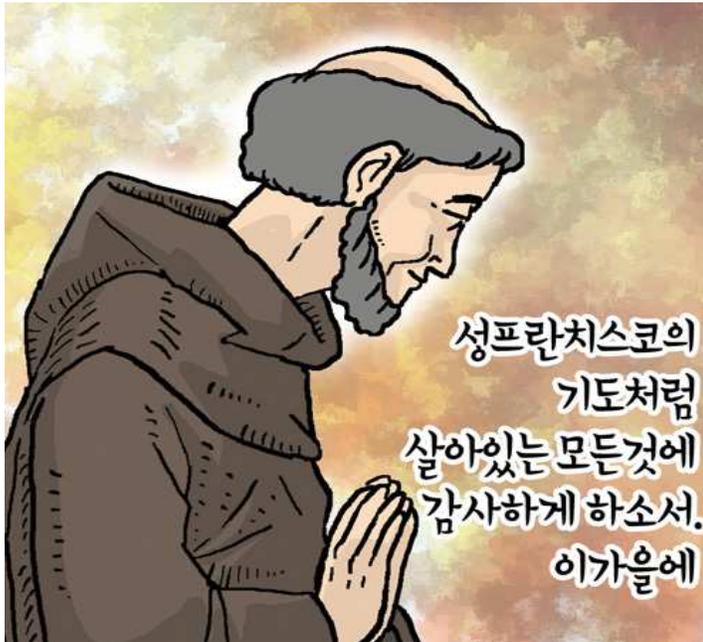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2, 1-5
 [화답송] 시편98(97), 1, 2-3, 4, 3, 4-5-6 (◎2참조 또는 3-4-5)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 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뿐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독서] 로마10, 9-18
- [복음 환송송] 마태28, 19.20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28, 16-20

성가	8시 미사	입당 450(1, 4절)	봉헌 213 340	성체 175 496	파견 63
	11시 미사	입당 450(1, 4절)	봉헌 213 340	성체 175 496	파견 63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9주일(10월 19일)		연중 제30주일(10월 26일)		연중 제31주일(11월 2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권미카엘(창모)	정스텔라(애리)	김말가리다(미숙)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최베네딕토(환준)	정요한(석준)	성프란치스코(일환)	이레이몬드(창용)	이바오로(명국)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최베네딕다(수영)	손리디아(정욱)	정글라라(영희)	이베로니카(경란)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생명의 말씀

내가 불완전해도 그와 안 통해도

교황님의 방한 이후 많은 이들이 교회와 하느님께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쉬던 교우들이 고해소를 찾고 예비신자 교리반은 넘쳐 나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황님 자랑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몸이 움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각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 큰소리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자기 성찰을 하다보면 불완전한 내 모습에 망설임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이들에게 당신의 복음 선포 사명을 맡겨 주셨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새겨 봅시다.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마태 28,16) 배반자 유다가 빠진 ‘열한 제자’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마티아 사도가 뽑히기 전이고 (사도 1,12-26 참조) 완벽한 숫자인 ‘열둘’에서 하나가 빠진 모습입니다.

이 ‘불완전’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불완전하데 이 상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기에 나의 부족함은 복음 선포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릴래아 지방은 유다 지방과 달리 이방인이 많아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마태4, 15)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선교 여행의 시작이 갈릴래아로부터인 것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즉 ‘모든 민족들’ (마태 28,19)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느낌과 사상, 습관, 말, 생각 등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안 통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선교 사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해도 그와 안 통해도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것이 선교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여기서 ‘제자’는 ‘하늘나라의 제자’ (마태 13,52)이

고 예수님의 제자(마태 27,57)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로 시작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기도는 성호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마무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에 이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계명 준수’ 교육이고 실천입니다. ‘계명 준수’는 신앙의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는 우리에게 해 주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강귀석 신부
서울 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세계 속의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현재 5대륙에 1,000여 명이 넘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은 대륙별로 선교사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선교사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피정과 강의를 통해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선교체험 나눔을 통해 선교사의 정체성을 깨닫고 현지에 맞는 선교방법을 모색하며, 현지 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나는 중국 단둥에서 3년을 보내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구에서는 교포사목을 중심으로, 수도회에서는 사회복지와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자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대륙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중국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교회의 모습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교회는 지상교회(애교회), 공개교회, 지하교회로 나누어져 있지만 믿는 신앙은 같다. 비록 중국교회는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많은 선교사들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작년 전교주일 담화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손실이 아닌 이득”이며, “성소가 풍요로운 교회들이 성소가 부족한 교회들을 아낌없이 도와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한국교회에 하신 말씀이라 생각된다. 과거 중국교회가 한국교회를 도와주었듯이 이제는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자산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더 풍요로워지는 길이라 생각된다.

전대회 바울로 신부
인천교구사우동 본당 주임



그곳에서는 그들처럼

글_박노해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저의 대부님은 안성기 사도 요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배우 안성기’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대부님이기 이전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 이자, 저의 ‘큰 바위 얼굴’ 입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저를 천주교로 이끌어 준 분입니다.

영화 담당 기자와 영화평론가로서 지켜본 20여 년 동안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해, 저로 하여금 ‘언젠가 종교를 갖는다면 천주교를 믿자’ 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가톨릭서울형 데이케어센터(왕십리)의 수녀님과 직원들을 보고 신자가 되자고 마음먹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천주교 신자였고,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저의 대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 입니다. 저는 ‘전교’ 하면 신부님의 파견 말씀이 우선 떠오릅니다.

-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 말씀에 저는 예외 없이, 이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미온적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교에 앞서 저 자신의 신심부터 돈독히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말씀공동체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의를 다지는 일환으로 ‘성경’ 과 ‘주님의 기도’ 등 기도문, ‘준주성범’ 등 신심서적 쓰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전교’ 하면 저의 대부님도 떠오릅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로마 1,17),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2코린 6,16),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에페 5,30)라는 말씀의 실체를 대부님을 통해 목격했고, 제가 스스로 대부님을 따랐듯

이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게 진정한 전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님은 가톨릭 신자로서 저의 으뜸 자랑입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대부님 성함을 말씀드리면 저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대부님처럼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고, 대자답게 달라져야 한다고, 대자다워야 한다는 점을 늘 상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하면 대부님께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교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대부님처럼’ 을 반추해 봅니다. 신앙인으로서 대부님의 한결같은 배움을 대자가 되고, 저도 그런 대부가 되자고 재삼 되새겨 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1요한 3,18)

배장수 베네딕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

제1586호 연중 제29주일 2014년 10월 19일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

갈라티아서는 바오로 사도의 친서로서 근본적으로 논쟁적인 편지입니다. 갈라티아 공동체의 긴박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저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큰데, 바오로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중요한 신학 개념과 용어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편지를 아무 설명 없이 갈라티아의 여러교회들에 보내고 있는데, 갈라티아는 본래 소아시아 중북부고원지역을(북부 갈라티아) 지칭했는데, 나중에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여기에 소아시아 중남부의 몇 지역이 합해졌습니다.(남부 갈라티아)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오로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남부 갈라티아에 공동체를 설립했고,(사도 13,1314,26)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북부 갈라티아를 횡단하면서(사도 16,6) 그 지역을 복음화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가 북부 갈라티아에 보내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갈라티아서와 다른 편지들의 연대기적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술시기와 저술장소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54~57년 사이에 에페소, 마케도니아 혹은 코린토 중 한 곳에서 저술된 것으로 봅니다. 바오로 사도는 처음에 육체적 질병 때문에 갈라티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갈라티아인들은 관대하게 그를 돌보아주었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갈라 3,2-5)

그러나 편지를 쓸 무렵 익명의 선동가들에 의해 공동체는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갈라 1,6)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와 바오로 사도를 갈라놓기 위해 바오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오로 사도

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핵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우선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천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지상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이 매여 있는 종살이와 대조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에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그분의 죽음과 삶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되며, 신앙을 통해 사람은 '의화'를 얻습니다.

의화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게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업적은 이토록 충만하고 효과적이기에, 그 어떤 것도 그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간접적으로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죄의 존재와 역할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상 율법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 (갈라 1,7)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반대하는 바오로의 논쟁은 분명한 그리스도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바오로 사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업적을 축소시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성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서울분원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0월 19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노소피아(용례)
	연	양마리아(석순)	이아가다(윤자)
	연	양마리아(석순)	조바오로/분다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김안드레아(석호)	문유스티나(아영)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노소피아(용례)축일	찬미성가대
	생	김에드워드(지성)	전수산나
	생	벤자민 탄생	송토마스
	생	김유릿다(정희)생일	익명
	생	김유릿다(정희)생일	임루시아
	생	윤루카(성진)	가족
	생	찬미성가대	김데레사
	생	부모님	심미카엘/백루카
10월 2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8	190	21	289
헌 금	\$491	\$1,003	\$10	\$1,504

< 교무금 > \$3,380

황정희(10) 이순자(9-10) 김영민(8-10) 최순일(10)
 김상실(11-12) 김영길(9-10) 조진행(12) 허동원(10)
 조덕행(9-10) 이선희(10) 최윤기(10) 심재구(9-10)
 김정복(10) 김옥녀(10) 전문자(10) 성태성(7-12)
 김순이(10) 임장만(1-12)

< 성소후원금 > \$290

조덕행(9-10) 조진행(7-11) 최윤기(10)
 이선희(10) 김정복(10) 김순이(10) 임장만(1-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황정희 \$100

~~~~~ 오늘은 김영준 사비노/정병구 베드로 가정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10월 19일(오늘) : World Mission Sunday(전교주일)

◆ 11월 위령성월 묘지미사 안내

일시 : 11월 1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Gate of Heaven

◆ 북가주 한국학교 주최 그림그리기/백일장 대회 수상

그림 : 중등부 으뜸상 - 정송은(본당 한국학교)

초등부 4등 - 김애린(본당 한국학교)

유치부 3등 - 하희연(본당 한국학교)

백일장 : 중등부 으뜸상 - 이승혜(콩코드 한국학교)

중등부 4등 - 허진영(본당 한국학교)

\* 위의 학생들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사목회의 : 10월 1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구역장/반장회의 : 10월 26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ME 모임 : 10월 26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빈첸시오 홀리스 141차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10월 23일(목) 오후 4시

◆ 가톨릭 성서 모임 - 창세기 그룹 참가 신청

문의 : 본당 사무실

신청마감 : 10월 26일(일)

\* 오리엔테이션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9일(일) 오후 1:30 ~ 3:30

안내 : 본당 말씀의 봉사자들과 조마오로 수녀

◆ 오늘 성모회에서 고구마, 단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5-16장**

|       |              |                          |
|-------|--------------|--------------------------|
| 1 구역  | 10월26일(일) 6시 | 유인웅 데이빗 맥                |
| 2 구역  | 10월25일(토) 6시 | 윤종진 엘리야 맥                |
| 8-1구역 | 10월25일(토) 5시 | 김세록 제랄드 맥                |
| 8-2구역 | 10월25일(토)6시반 | UC Village Fourcorners # |
| 9 구역  | 10월25일(토) 6시 | 류현욱 베르나르도 맥              |

◆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일시 : 11월 10일(월) 오후 7시

장소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신청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무료배급 신청을 받습니다.

배급 일시 : 11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11시

장소 : 본당 친교실

신청 :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문의 : 510-580-7880

◆ 성물 20% Sale ~!!

본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성물방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성물들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 헤어컷 봉사자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은 헤어컷 봉사가 없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우르슬라(10/21) : 성영자

\* 힐라리오(10/25) : 엄철기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